

## Circumcision v Christ 할례 v 그리스도 (갈 5:1-12)

### The Significance of 'Circumcision'

We continue the series from Galatians after last week seeing Paul prove that the Law itself shows that there are two spiritual categories of people in the world....those wh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to try & earn God's favour....those who depend on God's grace by faith.

The former, Paul said are children of the slave — represented by Hagar — Sinai/old covenant— Jerusalem 50AD. The latter are those who like Isaac, son of Sarah — are born according to the Spirit = spiritual heirs of the NC = all believers

This week Paul hones in on the disastrous consequence of submitting to the false teaching & contrasts it with faith in Christ...to drive us back to Christ.

Though the particular heresy of the circumcision group underlies Paul's strong teaching throughout the first 4 chapters..... it's in this passage where Paul first states it clearly. For us who live nearly 20 centuries later, in a very different culture.....we may well wonder, 'What's the significance of male circumcision??' It's this; male circumcision had become the particular sign of human effort to merit God's approval — to gain a right standing — to be justified.

We can also helpfully understand the issue at hand from what Paul says in Philippians 3:4ff. Re 'confidence in the flesh'...“....If anyone else thinks he has reason for confidence in the flesh, I have more: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of the people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Hebrews; as to the law, a Pharisee; as to zeal, a persecutor of the church; as to righteousness under the law, blameless.”

The appeal of circumcision is as we saw last week — human pride — the delusion of autonomy — that we have power to justify ourselves through who we are or by what we do... The spirituality behind the push for male circumcision of Christians in Galatia 50 AD is what drives every world view apart from faith in Christ alone ....

### 할례 문제의 종대성.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두 영적 분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자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 바울은 말하기를 하갈과 같이 종의 자녀이며.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이삭과 같이 사라의 아들이며, 성령을 따라 난 자이며, 새 언약의 영적 상속 자 됨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구절을 통해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복종할 때 겪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강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대조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은 앞선 4 장에서, 이 거짓 가르침에 언급하긴 했지만, 오늘 구절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 언급합니다. 20 세기가 지나, 매우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 할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며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할례의 문제를 빌립보서 3:4 절에서 말씀하는 “육체를 신뢰”한다는 배경에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난주에 보았듯 할례 행위의 매력은 인간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50 AD 에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고집한 이면의 영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인식을 몰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From secular humanism to world religions, cults & churches they teach that salvation or redemption of various kinds comes by doing your bit..... “I can save myself” ....It masquerades as freedom when ironically all it does is enslave.

Though one might think that I'm preaching to the converted.....Consider the question, 'where do I practically seek my everyday spiritual confidence?' Do I think that God loves me more when I've had a good week, morally speaking or that He loves me less when I've fallen into sin? If yes, then it's a sign that in some way I'm facing the same danger as the believers of Galatia.

The great solution Paul gives is to contrast circumcision with faith in Christ. That we would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submitting to works of merit, that we would be refreshed & renewed in the hope we have in Christ.

#### The Spiritual Catastrophe of Circumcision (1-4)

v1,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refore, and do not submit again to a yoke of slavery. Look: I, Paul, say to you that if you accept circumcision, Christ will be of no advantage to you.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who accepts circumcision that he is obligated to keep the whole law. You are severed from Christ, you who would be justified by the law; you have fallen away from grace.'

Paul begins by stating the purpose of Christ's redemption as freedom. Notice he includes himself with the Galatians as having been liberated. Christ had set Paul free from the condemnation of the law to live as an heir of freedom under grace....Christ had set the Galatians free from the condemnation of being bound to idols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의 여러 종교, 그리고 이단들이 가진 공통된 가르침은,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달린 거라 가르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 할 수 있다” 하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듯 싶으나 아이러니하게 더욱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나는 어디서 영적 확신을 얻으려 하는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이는 당신이 갈라디아의 교인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할례와 믿음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통해 우리가 행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직면하게 될 결과에 대해 이해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 **할례의 영적 재앙 (1~4 절)**

1~4 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목적이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 자신 또한 그런 자유를 누리는 자에 포함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은혜 아래에서 자유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Both systems of religion saw the adherents under the same kind of tyranny that brought conviction & condemnation. The Galatians as we know — under the influence of the false teachers — were being tempted to add human effort to the finished work of Christ. Paul warns them not to submit again to spiritual slavery. The word translated, ‘yoke’ was the wooden bar put over an animal’s neck that made them ‘beasts of burden.’ He then alerts the Galatians to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submitting to circumcision.

Firstly, ‘Christ will be of no advantage to you.’ It shows that the Galatians thought they could trust Christ while also adding male circumcision to make them acceptable. Circumcision stood for the whole law of God. Jews were circumcised already as a sign of the covenant God gave Abraham...but for the Galatians to submit to that sign would also mean they were bound to keep the whole law.

It may have seemed like a minor addition. It was a complete enslavement. Any addition to the work of Christ is to say that His work is insufficient. That is to cut ourselves off from with Christ which is the same as having fallen from grace. There is no favour from God in trying to earn His favour...His favour is found in Christ alone.

The very essence of mercy is to receive...it stops being mercy when we try to contribute or think we can add something.

P Ryken: ‘What is your mode of justification? Getting circumcised is one alternative to faith in Christ, but there are many others. Some people base their standing before God on the work they do in the church, or on the quality or frequency of their personal devotions. Others depend on the decision they made for Christ when they walked down the aisle or raised their hand at an evangelistic rally, as if they were saved by that gesture. Still others seek to justify themselves by the fact that they are baptised & confirmed members of a Christian church. If we try to be justified before God by anything we do, no matter how small it is, we are not free. This is why justification must come by faith alone. What Jesus did on the cross & through the empty tomb is the only thing that justifies sinners. Right standing before God can only depend on His righteousness imputed to me...not on anything I have done...otherwise, I am enslaved by my own works.’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선생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공로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며, 이는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멍에”라는 단어는 가축 등에 달은 나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할례의 율법을 따르게 될 때 나타나는 재앙적 결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할례의 공로를 더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라 생각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할례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상징으로 이미 할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갈라디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할례의 증표를 따른다는 것은, 율법 전체에 매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공로를 더한다는 것이 그리 큰 문제인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이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은혜로부터 떨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은혜를 얻으려 한다면 이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공훈의 본질은 “받음”에 있습니다...사람의 공로가 기여한다면, 더 이상 공훈은 공훈이 아닌 것입니다.

신학자 Philip Ryken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칭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대안 중 하나이고, 이 외에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하면 또는 말씀 목상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전도 집회에서, 설교자의 초대에 따라, 손을 들거나 무대 앞으로 나가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은, 자신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교인 이 되므로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사소하고 작은 행위일지라도, 우리의 어떤 특정한 행위로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의 창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의 부활하심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음은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공로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Faith alone, on the other hand is the only thing that produces genuine, God-glorifying works...

### The Faith-Driven Hope of Christ (5-6)

V5, 'For through the Spirit, by faith, we ourselves eagerly wait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Waiting for God's final declaration of righteousness — with certain hope is a demonstration of faith in what Christ has done already to justify all who trust Him! Eager waiting is a mark of our quality of faith in the sufficiency of Christ.

A test is the degree to which we wait with hopeful expectation the our judge will declare what He has promised all who are united to Christ by faith.

v6,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counts for anything, but only faith working through love.'

Neither circumcision or uncircumcision counts...nothing can improve our standing before God.... What matters before God = faith working through love

Faith is not a work....it's the bare means or instrument that God enables by the Spirit to receive His message of Christ crucified, risen & reigning.....that there was only One who lived under the Law perfectly & gave Himself to free all who receive His righteousness by faith

It's the principle to which God calls all who are in Christ — ie — all who are free, to live.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means living by the principle of grace.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Romans 1:17, Gal 3:11, Hab 2:4). Faith in Christ means loving Him — by grace He empowers us to love.....we grow in love as we grow in depth of trust in the extent of Jesus' love for us.

그래서 이런 믿음만이, 참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일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 믿음이 이끄는 그리스도의 소망 (5~6 절)

5 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분명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의 선언을 기다림이 그리스도가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참된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다 선언하실 일을 얼마나 고대함 가운데 기다리느냐에 있습니다.

6 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수단, 도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 아래 완벽하게 사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자유로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원리입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롬 1:17, 갈 3:11, 합 2:4). 그리스도를 믿음은, 은혜의 능력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에 대한 신뢰가 깊어 질수록, 우리는 사랑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As Jesus said to Simon the Pharisee in response to the woman who anointed his feet with ointment, “he who is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Luke 7:47)

The opposite of faith in Christ is the lie of performance based religion.....

### The Telling Contrast of the Preachers (7-12)

v7, ‘You were running well. Who hindered you from obeying the truth?’

Paul’s question shows that the Judaizers were trying to block the Galatians from truth. The word translated, ‘hindered,’ was associated with the ancient Greek games about the dirty tactic for winning by cutting in on one’s opponent.

In Paul’s question we see the start in this final section of him drawing a contrast b/w the false teachers & himself as a preacher of the cross. Clearly the implication is that the troublemakers were being devious & false.

Despite the way they had presented themselves — as being followers of true religion....they were anything but... v8, ‘This persuasion is not from him who calls you.’

Paul wanted them to draw the conclusion to the question — if God wasn’t behind the persuasion, then who was? They looked respectable. They sounded convincing. They were persuasive. They were of the devil. In 2 Cor 11 Paul wrote about deceitful workers — servants of Satan masquerading as servants of righteousness.

Beware of those who have a strong persuasive appeal but questionable substance that in the end leads us away from the truth of Christ. Their effect is dangerously pervasive....

누가복음 7:47 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 중심적 종교의 거짓말입니다.

### 설교자들의 극명한 대조.

7 절 “*너희가 달음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런 바울의 질문은, 당시 유대교인들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진리로부터 막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에서 “막아”라는 단어는,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게임을 할 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더러운 전술을 사용한다는 배경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질문에서 바울은 그를 십자가의 설교자로서 거짓 교사들과 대조를 그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분명히 나타내려는 바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사악하고 거짓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참된 구원의 신자로 나타낼지 언정, 8 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권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런 질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꽤 괜찮아 보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11 장에서, 바울은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종들에 대해 말씀할 때, 이는 사탄으로부터 온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강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의심스러운 실체에 대해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매우 위험스럽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v9,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It's the image of yeast or leaven that the Lord uses in the gospels about the spiritual influence of the Pharisees. Paul also uses it about the polluting effects of tolerating immorality in 1 Corinthians.

Here in light of having spent 4 chapters warning them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Paul now writes with hope of their godly response....

v10, 'I have confidence in the Lord that you will take no other view, and the one who is troubling you will bear the penalty, whoever he is.'

Paul is the great contrast with the troublemakers....

v11, 'But if I, brothers, still preach circumcision, why am I still being persecuted? In that case the offence of the cross has been removed. I wish those who unsettle you would emasculate themselves!'

It seems that part of their deception was even to insinuate that Paul was united with them in his understanding of circumcision....but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His persecution proved His unity with Christ who died for sinners who turn from self-righteousness to that found in Him alone.

It sounds shocking that the great Apostle, while not threatening the false preachers of circumcision with violence, wished that they would castrate themselves. It helps to know the context from both pagan spirituality & the OT law to understand Paul's meaning. The pagan priests in Northern Galatia at the time of the female fertility idol Cybele were made eunuchs at an annual festival. Paul was saying something like this: "the deceptive circumcision preachers are no different to the pagan priests & they ought to reflect this by doing what they do." The OT b/g is from Deut 23:1 which says, "No one who has been emasculated by crushing or cutting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It's as if Paul is merely expressing in physical terms the logical conclusion of their spiritual damage.

9 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복음서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영향력을 누룩에 비유하셨었고,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부도덕함을 묵살하는 영향력에 대해 누룩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앞선 4 장에서, 심각한 경고 후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경고에 올바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10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0 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큰 대비를 나타냅니다...

11~12 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 중 일부는 심지어 바울이 할례에 있어서 그들과 연합했다는 것을 암시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임수는 진리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박해받았다는 사실이, 그가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위대한 사도가 할례의 거짓 설교자들을 폭력으로 위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거세하기를 바랐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당시 이교도의 영성과 구약 율법의 배경에서 생각하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됩니다. 당시 북 갈라시아의 이교도 제사장들은, 여성 다산의 우상이었던 키벨레 연례 축제에서 거세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풀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적인 할례파 교사들은 이런 이교도 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고,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하는 일에 대해 반성해야만 한다." 구약에 배경에서 신명기 23:1 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와 그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들의 영적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해, 육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Circumcision seems like a small thing....though it stands for false religion .....because simply put.....it does the opposite of justify... Paul's wish is that such agitators would be cut off from their influence on God's people...

While some take offence at Paul's strong language...the majority of the non-Christian world takes offence at what lies behind it... 'that God does *not*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The central message of salvation by faith alone through the merits of Christ alone is offensive...it renders all our proud efforts to be of no consequence & not only that, but deserving of God's judgement...

### Beware of the Danger, Live by Faith

But 'the cross where Christ was crucified to pay for human sin' was the offensive message Paul preached. It stood & forever will stand against the pride that so often tempts us away from faith in Christ alone to trusting ourselves.

That's the appeal of all man-centred religion or philosophy.....it tells us what our self-centred itching ears want to hear. We must beware! The choice can only be, 'circumcision or Christ'? 'human effort or God's grace'?

One seems appealing but can only begin & end in catastrophe... The only alternative is to live by faith in Christ....His great love empowers us to love others....Faith works hope until hope is realised ..... when we will be with Him forever

할례가 별로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이기에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람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에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 메시지인,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노력을 중요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 위험을 조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는 바울이 전한 공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여, 우리 자신을 신뢰하도록 유혹하는 교만을 대적하며 또한 영원히 대적할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종교나 철학은, 가려운 사람의 귀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려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일한 선택은, “할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인간의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입니다.

할례와 인간의 노력을 의지함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나, 끝내 이는 재앙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그래서 그의 큰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